

論壇

큰 일을 지른 후의 마음가짐

"그대를 여름날에나 비교해 볼까?"

이 것이 아름다운 여인을 찬양한 셰익스피어의 저 유명한 소네트 첫 머리가 이닌가? 여름은 가히 미녀와도 비견되는 청청한 계절, 성장의 계절(佳節)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을 음미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우리는 근래 큰 일들을 잇달아 치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신이 몹시 지쳐 있는 형편이다. 그 간의 관계자들의 노고를 어떤 말로 위로내지 치하한들 부족함을 느낄 줄 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수레바퀴는 우리가 지적 있건 쓰러져 있건 불문하고 쉬지 않고 앞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대로 넘어져 있다가는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자세를 기다듬어야 하겠다.

첫째, 이번 일들을 거울 삼아 모든 업무 처리에 신중과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번 기간 중의 지적 사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공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음을 간과하지 못할진대 이를 교훈 삼아 약점하는 성기를 다변해야 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문서화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하겠다. 빈번한 인사 이동, 퇴직 등에 따라서 상당 기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후임자는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일지라도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요 사항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문서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세째, 이번 일들로 인해 정채된 업무가 있다면 조속히 완성화하여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다. 연초에 작성된 계획들은 대개가 우리 능력에 벅찬 것이었으니만큼 아직까지 그 업무들이 스킵줄대로 진행되어 왔다 해도 자칫 차질이 생기기 쉬운데 하물며 생각지도 않던 큰 일들을 치른 현실에서는 비상한 대책 수립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네째,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어느 때 어느 기관이 우리 일을 파헤친다 해도 두려움 없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겠다. 폴딩클린의 저 유명한 말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를 다음속에 새겨 두어야 하겠다.

다섯째, 아직 이번 일들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쓸데없는 억측을 삼가고 경거 망등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뒷마무리에만 전념하여야 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획을 통하여 그간 이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 협회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우리가 방화업무와 보험 업무로서 이 사회를 위하여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인식시키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싶다.

"비 온 후 땅이 더 굳어진다"는 외국 속담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야 하겠다.